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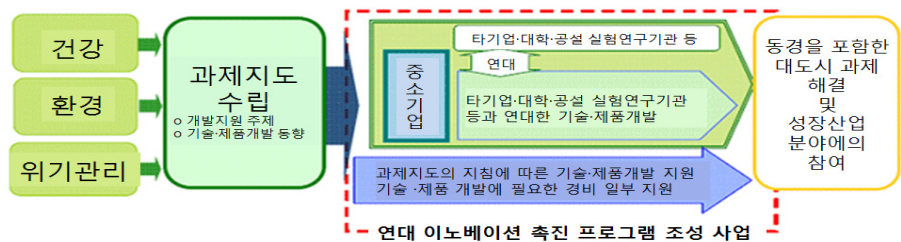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중소기업의 성장산업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실시	도쿄
산업·경제	3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창업 훈련 학교	미국
사회·복지	5	재가요양환자의 증가에 따라 환자보호자 지원시스템 강화	베를린
	7	대도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재검토에 긴급 제언 제출	도쿄
행정·교육	9	디트로이트市 파산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시각	디트로이트
환경·안전	11	공공녹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베를린
	15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 모니터요원 제도 도입	도쿄
	17	고정가격매취(買取) 제도를 활용한 소형 수력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도쿄
도시교통	19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심에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트럭에 부담금 부과 계획	런던
	20	절도 및 파손이 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의 가장 큰 걸림돌	파리
	22	버스운전기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버스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리치몬드
도시계획·주택	23	PPS의 LQC 공공공간 개선전략	뉴욕

중소기업의 성장산업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실시

도쿄都 / 산업·경제

-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중소기업의 건강, 환경, 위기관리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개발지원 주제와 그에 따른 기술·제품개발 동향을 보여주는 2013년도 판 ‘과제지도’를 작성하여 2013년 8월 28일에 발표함. 또한, 이와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과제지도’(課題マップ)란 건강, 환경, 위기관리 등의 성장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가를 검토할 때 지침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도시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지원 주제 및 기술·제품 개발 동향을 보여 주는 지도임.
-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사업”(連携イノベーション促進プログラム助成事業)이란 ‘과제지도’에 따라 도쿄도내 중소기업들이 다른 기업, 대학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기술·제품개발을 공모·선정하고, 개발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사업의 체계도

-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사업”의 조성 대상사업, 대상자, 조성금액 및 조성비율, 조성기간, 규모,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사업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성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술·제품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래의 [과제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 환경, 위기관리 등 각 분야에 대한 개발지원 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실시내용에 다른 기업, 대학, 공설 시험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외주, 위탁·공동 연구에 따른 노하우 활용)를 포함하는 사업
조성 대상자	◦ 도교내 주된 사업소 또는 연구개발 장소가 있는 중소기업자 등
조성금액 및 조성비용	◦ 조성한도액 3,000만원(약 3억 2,829만원), 조성비용 3분의 2 이내
조성 기간	◦ 2년 이내 (2014년 1월 1일부터 최장 2015년 12월 31일까지)
규모	◦ 10 개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채택)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교도 중소기업진흥공사 홈페이지의 모집안내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2013년 9월 20일 오후 5시까지 신청 ◦ 신청기간은 2013년 10월 3일~10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사업” 개발지원 주제는 건강, 환경, 위기 관리 등 3개 분야 12개 주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사업의 개발지원 주제

분야	개발지원 주제	기술·제품개발 예시*
건강	고령자를 지켜볼 수 있는 기술·제품 개발	생활리듬센서 등 각종 센서를 활용한 센싱 기술·제품 등
	고령자 생활지원·개호부담 경감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이동기기 및 통신관련 공구와 같은 각종 복지기기 등
	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각종 의료기기, 건강기기 등
환경	자립·분산에너지에 관한 기술·제품개발	열병합발전시스템이나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제품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태양광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시스템에 관한 기술·제품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축전지시스템, HEMS·BEMS 등에 관한 기술·제품 등
	자원 재활용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사용후 소형전자기기 등의 희소금속 재활용 및 식품재활용에 관한 기술·제품 등
	대기오염·VOC 대책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VOC처리 및 측정에 관한 기술·제품 등
위기관리	건축물 내진화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제진보강(制振補強), 면진보강(免震補強), 내진보강(耐震補強)에 관한 기술·제품 및 내진설계, 평가에 관한 기술·제품 등
	재해시 정보제공·수집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각종 안부확인시스템에 관한 기술·제품 등
	방범대책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방범카메라,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침입탐지에 관한 기술·제품 등
	식품안전에 관한 기술·제품 개발	식품의 이물 혼입 방지 및 탐지에 관한 기술·제품 등

* 테마에 부합한다면 예시 이외의 기술·제품도 대상이 되며, 각 장비 및 시스템의 구성부품이나 부자재 등의 주변 기술·제품 개발도 대상이 됨.

- 도쿄都는 2013년 8월 29일~9월 6일 중 총 4회에 걸쳐 중소기업진흥공사 본사 및 각 지사에서 연대 이노베이션 촉진 프로그램 조성사업에 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후, 10월 초에 신청접수를 받았음.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08/22n8s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08/DATA/22n8s100.pdf>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08/DATA/22n8s101.pdf>

<http://www.tokyo-kosha.or.jp/topics/1307/0002.html>

산업·경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창업 훈련

학교

미국 / 산업·경제

- 미국에서는 각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맞춤형 코스를 제공하는 뉴욕 '제너럴 어셈블리(General Assembly)'나 시카고 '스타터 스쿨(Starter School)' 등과 같은 창업 훈련 학교들이 최근 창업이나 스타트업 합류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이런 스타트업 스쿨(Startup School)의 핵심은 프로그램 코딩, 마케팅, 창업 아이디어 실현 등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임.
- 아직은 극히 일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창업에 관심이 많은 대졸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며 이런 스타트업 스쿨들은 2년 과정의 MBA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비즈니스 스쿨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한 예로, 시카고의 '스타터 스쿨'은 9개월에 3만 3,000달러(약 3천 5백만원)의 싸지 않은 학비이지만 2년 과정의 MBA 학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

고 할 수 있으며, 또 각 지역의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강사진으로 포진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므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설립된 지 1년이 된 보스턴 소재 ‘스타트업 인스티튜트(Startup Institute)’는 웹 개발, 마케팅 등의 과목을 포함한 8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 초 뉴욕과 시카고에 분교를 개설할 정도로 인기가 좋음.
- 이에 따라 최근 이와 유사한 창업 훈련 기관들이 워싱턴D.C.를 비롯 미 전역에서 문을 열고 있으며, 수강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음. 2011년 이래 뉴욕의 제너럴어셈블리의 강좌와 워크숍을 수강한 학생 수는 6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음.
-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런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MBA의 경쟁자라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고객층이 다르다는 입장임.

- 이러한 스타트업 스쿨 교육의 특징은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 및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지역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강사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는 점임.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징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MBA 교육과정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것임.

- 또한, 스타트업 스쿨이 부상하고 있는 다른 주요 요인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꼽을 수 있음.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보다 다섯 배나 빠르게 등록금이 인상하여, 현재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신용카드 빚보다 크며, 학자금 상환 연체율은 신용카드 연체율보다 높은 실정임.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나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최대 난관으로 아직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을 꼽고 있을 정도임.

- 단기간에 창업을 원하고 높은 비용의 학비를 주저하는 많은 창업자들에게는 스타트업 스쿨과 같이 맞춤형 형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함. 또한 각 지역에 맞게 세분화된 교육과정은 취업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음.



뉴욕 '제너럴 어셈블리' 학교의 모습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202304579052870645296730.html?mod=trending_now_6

사회·복지

재가요양환자의 증가에 따라 환자보호자 지원시스템 강화

베를린市 / 사회·복지

- 베를린市는 집에서 가족에게 간병을 받는 재가요양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보호자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함.
- 현재 베를린市에서 집에서 가족을 통해 간병을 받는 환자수는 17만명으로 전체 장기요양 대상 인구의 75%에 달하고 있음.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요양1등급 환자수도 1999년에 8만 1천명에서 2011년에는 10만 8천명으로 증가함. 이에 따라 집에서 간병을 전담하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환자보호자들은 대부분 요양보험을 통해 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만, 이들의 정신적, 감정적인 부담은 오직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안에서만 이해되고 해소되는 실정임.

- 장기간 겪게 되는 환자보호자의 정신적 부담은 본인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환자에 대한 폭력, 가족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市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80만유로(약 11억 6천만 원)를 추가하였는데, 재원은 市가 40만유로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하기로 함. 이 예산은 각 지역의 간병지원소(Pflegestützpunkt) 역할 강화, 요양공동체(Pflege-Wohngemeinschaft)와 이웃도우미시스템(Nachbarschaftshilfe) 확대 등 환자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사용될 계획임.
- 간병지원소는 건강 및 요양기관과의 연계 하에 각 지역에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해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임. 베를린市에는 2009년 처음 설치된 후, 현재 27개의 지원소가 운영 중임. 이곳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간병급여 신청, 가족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 시 체계적인 간병 설계 마련, 간병에 필요한 서비스(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장보기 서비스 등등) 제공 및 환자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상담과 해소방안들을 안내해 줌.
 - 이웃도우미시스템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가족이 너무 멀리 거주하는 경우 가족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이웃이 그 환자를 간병하고 돕도록 하는 시스템임. 대신 그 가족은 자기 거주지 근처에 있는 요양공동체(Pflege-Wohngemeinschaft)의 노인과 환자들을 돌보도록 함.
 - 요양공동체는 요양병원이나 양로원과는 달리 전통적인 가족, 이웃공동체와 유사한 새로운 형식의 주거공동체임. 여기에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없는 노인들과 병이 있는 노인들(예를 들면 치매환자)이 개인공간과 공동체 공간이 잘 갖춰진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가능한 간병과 도움을 자조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살게 됨. 이곳 노인과 환자의 전문적 간병은 요양기관의 방문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웃의 방문간병을 통해서 보충됨. 거주지가 멀어 자기부모를 돌보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대신 방문해 이곳 노인들과 환자들의 간병을 도와야 함.

- 요양기관의 입원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요양공동체와 이웃도우미시스템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베를린에는 약 500여 곳의 요양공동체가 운영 중임.
- 이밖에도 市는 환자보호자의 노고를 자원봉사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노고를 공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시행사를 개최함.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린 “환자보호자의 주(Woche der pflegenden Angehörigen 2013)” 행사에서는 환자보호자 활동의 가치를 새로 평가하고 그들의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과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벌임. 이 행사를 통해 가족 간병을 담당하는 환자보호자연맹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들이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또한 市는 환자보호자를 위한 인터넷 상담사이트인 “pflegen-und-leben.de”도 운영 중임. 이 사이트는 환자보호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익명으로 간병과 관련된 내용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해줌.

<http://www.berlin.de/aktuelles/berlin/3204193-958092-czaja-170-000-berliner-werden-zu-hause-g.html>

<http://www.berlin.de/pflege/pflegestuetzpunkte/>

<http://www.berlin.de/ba-tempelhof-schoeneberg/organisationseinheit/sozialamt/leben-und-wohnen/pflegewohnungsgemeinschaften.html>

<https://www.berlin.de/sen/gessoz/presse/archiv/20130923.1030.389585.html>

<http://www.woche-der-pflegenden-angehoerigen.de/>

대도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재검토에 긴급 제언 제출

도쿄都 / 사회·복지

- 도쿄都 보건복지국은 2015년 개호보험제도 차기개정을 앞두고, 도쿄都의 입장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의 재검토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2013년 9월 30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제출하였음.

- 2000년에 발족한 개호보험제도는 지난 13년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개호(간병)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왔음.
 - 제도 출범 후 12년이 경과한 지난 2012년의 제도 개정에서는 간호, 의료, 예방, 생활 지원, 주거 등 5개 관점에서 지역포괄케어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음.
 - 현재는 2015년 4월의 차기 제도개정을 앞두고, 2013년 8월에 정리된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 보고서(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報告書)”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보험부회(社会保障審議會介護保険部会) 및 개호급부비분과회(介護給付費分科会)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도쿄都是 본 제도가 대도시 도쿄의 실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긴급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호보수(介護報酬)의 지역구분, 가산제도 재검토, 저소득자도 단위형 특별양호노인홈(ユニット型特別養護老人ホーム)을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실현해 왔음.
- 도쿄都是 그동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개호기반 정비, 치매 대책, 재택요양 추진, 주거지 정비 등을 추진해왔으나, 도쿄都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 때문에 시설·주거서비스의 정비 촉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또한, 개호사업소의 자주사업인 숙박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음.
 - 따라서, 도쿄都是 2015년 개호보험제도 개정에 앞서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社会保障審議會 介護保険部会)에서 본 제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임.
- 제언내용은 개호기반 정비촉진, 보험급부의 효율화·중점화, 서비스의 질 확보, 주소지 특례 등 총 4개 분야 6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대도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개정에 관한 제언의 개요

분야	내용
개호기반 정비촉진	제언 1.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원을 정비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실시에 관한 법인의 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제언 2. 지가가 높아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는 여러 구시정촌이 공동으로 요양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언 3. 정기순회·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 복합형 서비스의 설치 촉진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의료와 개호의 연계에 필수적인 방문 간호사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지원책을 강구한다.
보험금부의 효율화·중점화	제언 4. 경미한 개호가 요구되는 자에 대한 보험금부의 검토에 있어서 조기에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확보 및 관리를 실시하는 보험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다.
서비스의 질 확보	제언 5. 통소 개호사업소(通所介護事業所)가 실시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숙박 서비스는 조기에 법령상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소지 특례	제언 6.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주택(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의 주소지 특례 도입에 관하여, 주소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노인들이 지역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주소지 특례 적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20n9u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0.pdf>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1.pdf>

행재정·교육

디트로이트市 파산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市 / 행재정·교육

-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디트로이트市の 파산신청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파산 원인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조합을 통한 높은 임금 인상, 잘못된 복지정책 등이 꼽히고 있지만, 최근에는 낮은 교육수준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디트로이트市の 쇠락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부동산 침체로 디트로이트市 집값이 급락함으로써 세수가 급감하였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미국의 남부에 위치한 州들의 부동산 세율은 1% 내외이고, 뉴욕과 뉴저지의 부동산 세율은 2.5~3% 수준임. 하지만,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디트로이트市の 평균 집값이 \$70,000(약 7천 6백만원)에서 \$17,000(약 1천 8백만원)으로 급락하였는데, 이에 따른 세금은 줄지 않아, 어떤 지역에서는 2012년 \$7,500(약 8백 2십만원)의 집값에 책정된 세금이 \$2,547(약 2백 8십만원)으로 집값의 30%에 육박하였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집값의 50%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되기도 함.
- 이에 비해 디트로이트市 외곽도시인 Royal Oak에서는 \$100,000(약 1억 8백만원)의 집값에 디트로이트市 소재의 집값 \$10,000 (약 1천8십만원)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살 수 있음.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많은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세금 내기를 거부하여 2012년에는 \$246million (약 2천 7백억 원)의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함.



2012년 집값이 \$6,500(약 7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4,373(약 470만 원)이 부과된 집의 모습. 결과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납부 거부 현상이 발생함.

-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임. 현재 디트로이트市の 40%에 해당하는 직업이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市에 거주하는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비율은 약 12%에 불과함. 이에 따라

현재 디트로이트市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80%가 디트로이트市가 아닌 외곽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임. 즉 디트로이트市의 경제가 디트로이트市 시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것임.

- 낮은 교육수준, 낮은 임금, 재정수입 감소, 공공서비스 부족, 고소득자 외곽 이전 등의 악순환으로 디트로이트市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임.

http://www.rooflines.org/3410/property_tax_madness_another_part_of_the_detroit_puzzle/

http://www.rooflines.org/3433/manufacturing_may_be_coming_back_but_it_wont_bring_jobs/

환경·안전

공공녹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베를린市 / 환경·안전

- 베를린市는 시민들의 공공녹지 이용행태, 공공녹지에 대한 만족도, 기대, 소망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공공녹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3년마다 공공녹지에 대한 온라인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올해는 4번째 조사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시발전환경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설문지는 독일 공원청이 만든 설문지양식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17문항으로 이루어졌음.
 - 공공녹지의 종류들(공원, 공공놀이터, 공원묘지, 도로변녹지, 산책로, 산과 하천 인접녹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녹지는 무엇인가? 이용빈도는? 공

공공녹지에서의 체류시간은? 주거지 선택에서 공공녹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가? 공공녹지의 방문이유는? 가장 자주 찾게 되는 공공녹지는? 집 근처 녹지의 보존상태는? 녹지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책임자가 필요한가? 새로운 공공녹지 조성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경요소는? 집이나 근처에 개인 텃밭을 가지고 있는가? 등임.

-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민설문조사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공공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모두 공공녹지를 도시의 주요공간으로 평가하며 특히 지역가치, 주택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함. 시민들이 주거지 선택에서 녹지를 고려하는 비율도 2004년에 66%에서 2010년에는 76%로 높아짐.
-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녹지는 공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 놀이터 및 체육시설, 숲, 강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조금씩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임. 이 경향은 특히 아이가 없는 응답자 및 남성 응답자에서 더 뚜렷함. 이러한 결과는 공공녹지 관리비용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함. 왜냐하면 2008년 기준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 및 유지비용은1평방미터당 86센트(1,250원)에 불과했던 반면, 놀이터 및 간이체육시설의 비용은 1평방미터당 2.93유로(4,260원), 도로녹화비용은 2.11유로(3,070원)나 들었기 때문임.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아이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원의 방문빈도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80%가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그리고 30%는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18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층 응답자들은 주말에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 중 85%는 평일에도 최소 1시간 이상 공원에서 산책 또는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녹지의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18세에서 63세까지의 연령대에서는 휴식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신선한 공기, 산책 순이었지만, 64세 이상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산책, 자연 접하기, 휴식기능이라고 응답함.

- 녹지의 조경 및 설치물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손질과 청결, 다양한 수목들의 군집,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과 흡사한 풍경, 그밖에 잔디밭, 연못, 개울 등의 조경요소였음.
- 공공녹지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항에서는 낮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87% 이상이 안전하다고 답함. 그러나 밤의 경우에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층에서는 30%, 18세 미만 청소년층과 64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약 50%가 불안하다고 응답함.
- 공공녹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 평가에서는 6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 이번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는 베를린市뿐 아니라 독일의 다른 도시에서도 실시되며 그 결과는 연말에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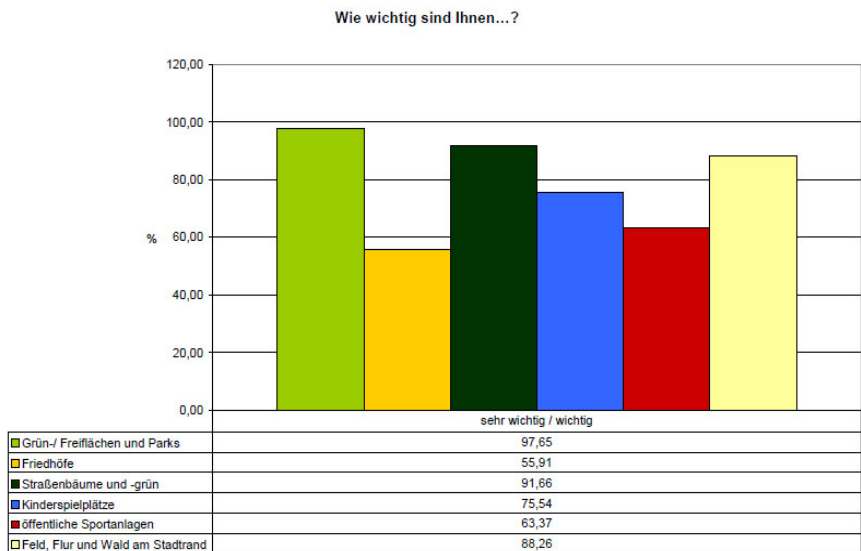


Abb. 3: Bedeutung von Grünanlagen in %.

공공녹지 종류별 중요도(%)

(그래프는 왼쪽부터 녹색은 공원, 황색은 묘지공원, 흑색은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 청색은 놀이터, 적색은 체육시설, 연노랑색은 강·들·숲의 중요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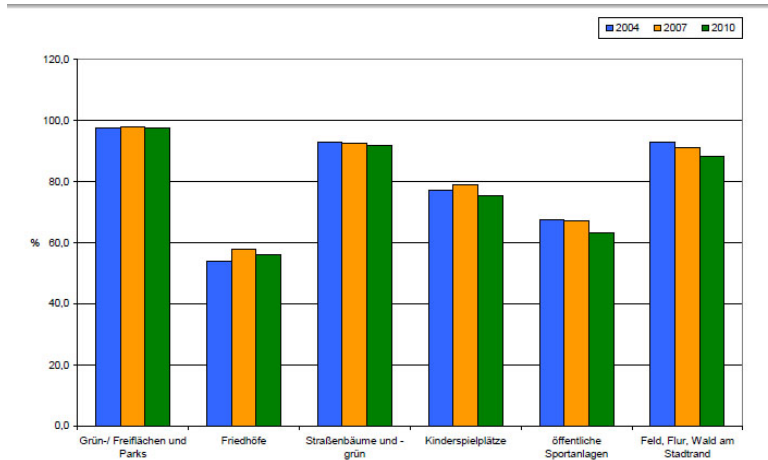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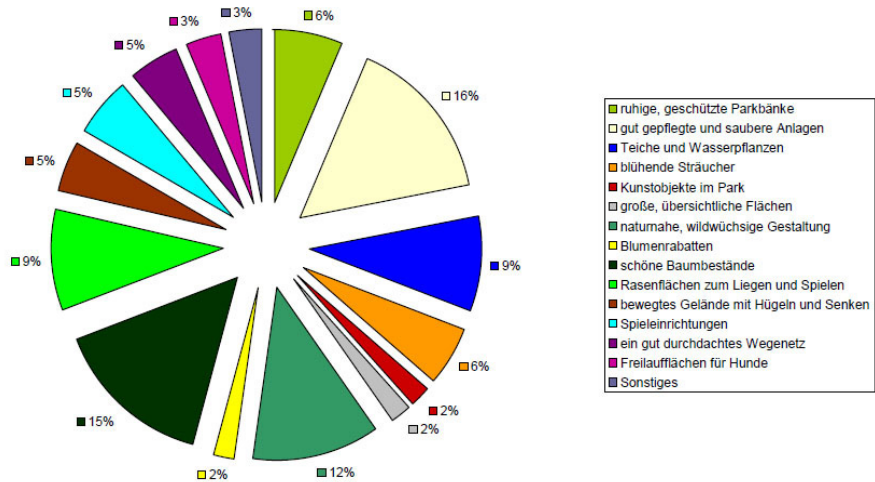


Abb. 4: Jahresvergleich Bedeutung von Grünanlagen in %
- Bedeutung sehr wichtig / wichtig

공공녹지 종류별 중요도의 인식변화 연간비교(%)

(청색 막대는 2004년, 황색은 2007년, 녹색은 2010년을 가리키고, 막대그래프의 순서는 왼쪽부터 공원, 묘지공원,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 놀이터, 체육시설, 강·들·숲 순임)



조경요소별 중요도(%)

(맨 위쪽 올리브색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벤치, 손질과 청결, 연못, 꽃나무, 예술작품, 넓고 조망 좋은 공터, 자연과 흡사한 분위기, 화단, 다양한 수목의 군집, 잔디밭, 구름, 놀이기구, 잘 고안된 길 연결, 개들과 뛰놀 수 있는 공간, 기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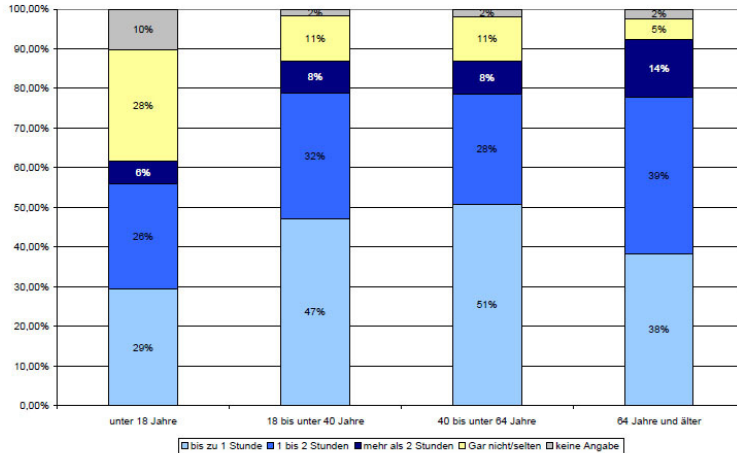


Abb. 8: Besuchsdauer von Grün- und Parkanlagen an Werktagen in %.

평일의 공원 체류시간(%)

(연령대는 왼쪽부터 18세미만, 18-39세, 40-63세, 64세 이상,

하늘색은 1시간 이하, 청색은 1-2시간, 진청색은 2시간 이상, 연노랑색은 체류 안함, 회색은 미답변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stadtgruen/gruenanlagen/de/umfrage/index.s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307/nachricht502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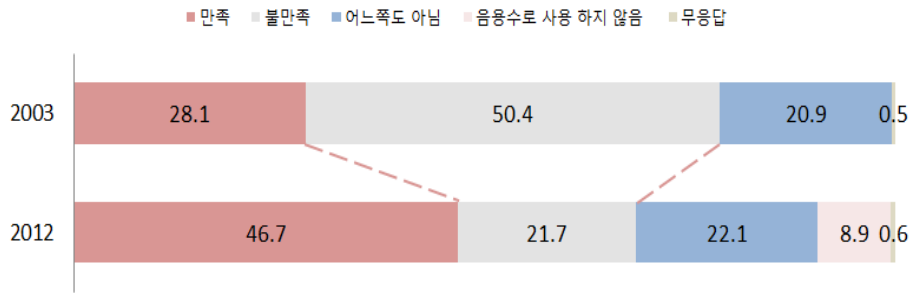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stadtgruen/gruenanlagen/downloads/Internetumfrage_2010_Auswertung_Gesamt.pdf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 모니터요원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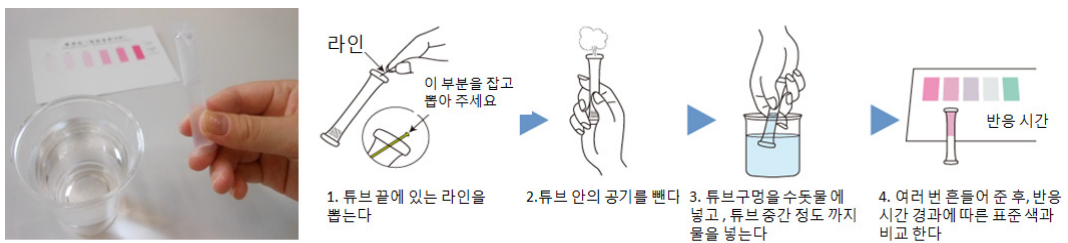
도쿄都 / 환경·안전

- 도쿄都 수도국은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도민(都民)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도입, 직접급수 방식의 촉진, 다양한 매체를 통한 PR 등 “안전하고 맛있는 물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음용수로서 수돗물에 대한 일반 도민의 만족도가 2003년 28.1%에서 2012년 46.7%로 크게 향상되었음.



수돗물에 대한 도민(都民) 만족도 변화

- 하지만 불만족이라 응답한 사람 중, 자신이 직접 수질을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이 나오기에 따라, 도쿄도는 가정 내에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맛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는 '수질 모니터 요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 모집 대상은 도쿄도 내 가정용 수돗물을 제공받는 모든 도민으로, 10월 3일부터 31일까지 도쿄도 수도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선출된 요원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도 개최할 예정임. 모니터 요원의 본격적인 활동은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측정 항목은 잔류염소, 전경도(全硬度), 철(Fe), 맛과 냄새 4종류이며, 모니터 요원들은 수질 검사 키트를 통해 측정한 결과 및 감상을 수도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



검사 키트와 검사 방법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10/22na2300.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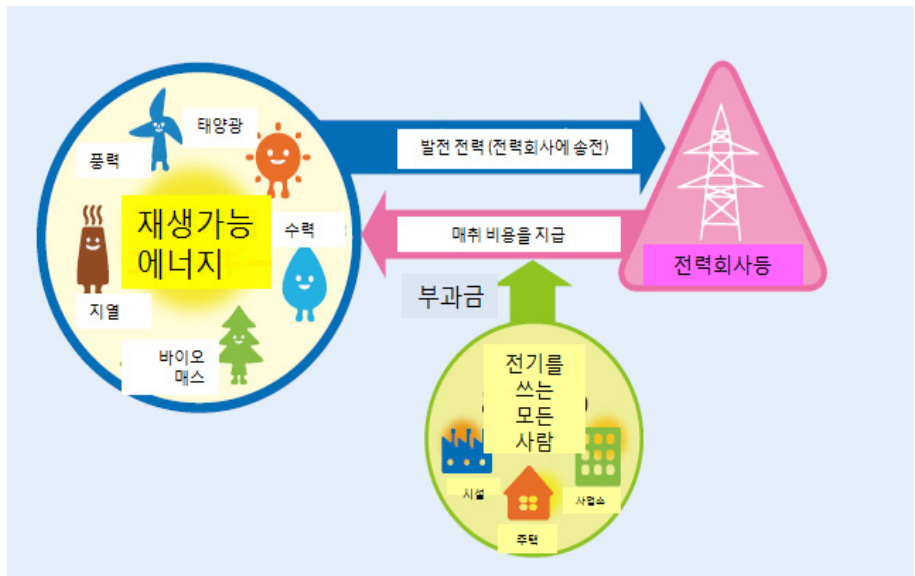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10/DATA/22na2300.pdf>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10/DATA/22na2301.pdf>

고정가격매취(買取) 제도를 활용한 소형 수력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도쿄都 / 환경·안전

- 도쿄都는 재생가능에너지 고정매취제도를 활용하여 전체 발전전력을 매전(賣電)할 수 있는 소형 수력발전설비를 카사이급수소(葛西給水所) 내에 완비하고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재생가능에너지 고정매취제도란 에너지 자급률이 4%에 불과한 일본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국가차원의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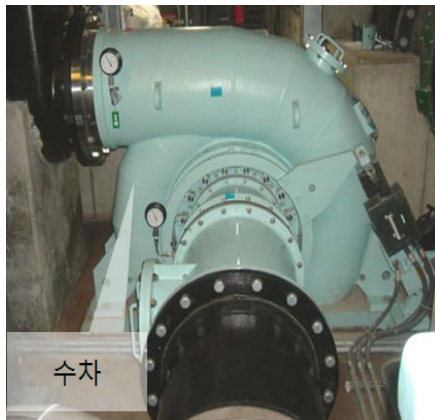


고정 매취 제도의 개요

- 즉,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그 지역의 전기 회사가 일정 금액으로 구매하여 발전 설비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구매에 필요한 금액은 전기 이용자가 부과금 형태로 지불하게 됨.
- 대상 전력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5종류이며, 발전한 전

기의 전량이 매수 대상이 되지만, 주택용 태양광(10kW미만)의 경우, 사용 후 남은 양만 매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번에 도쿄都가 고정매취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한 카사이급수소 소형 수력발전시설의 최대 전력출력은 340kW이고, 예상발전전력량은 약 140kWh/yr로 일반 가정 약 420채의 연간 사용전력량에 상당함.
- 카사이급수소의 발전전력 매각 대상은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인 사밋트에너지 주식회사이며, 매전(賣電) 단가는 33.18엔/kWh (약 366원)으로 책정되었음.



카사이급수소 내 소형수력발전기 모습

- 도쿄都 수도국은 이번 발전 시설 운영으로 연간 약 530t의 CO₂ 저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10/20na1100.htm>

http://www.enecho.meti.go.jp/saiene/data/kaitori/kaitori_jigyousha2013.pdf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10/DATA/20na1100.pdf>

도시교통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심에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트럭에 부담금 부과 계획

런던시 / 도시교통

- 런던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도시를 통과하는 대형트럭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013년 9월 4일 발표함.
- 교통사고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런던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의 53%가 대형트럭과 관련되어 있었음. 대형트럭이 런던시 전체 교통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2013년의 경우 9월 4일까지 발생한 총 여섯 건의 사망사고 중 네 건이 대형트럭과 관련되어 있었음.
 - 배달용 대형트럭의 경우 국가 기준에 따라 대부분 자전거 이용자가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이드바를 장착하고 타이어 스커트를 낮게 장착하는 등 안전 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나, 건설용 차량의 경우 이러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부담금의 부과는 런던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교통환경부담금(Low Emission Zone)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
 - 교통환경부담금 제도는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디젤 차량이 런던 시내를 통과할 때 일일 최고 200파운드(약 34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부담금 부과 제도와 더불어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와 런던시는 공동으로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 우선 영국 교통부와 운전면허청(Driving Standards Agency)은 효과적인 운전자 교육 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 또 기존에 시행되었던, 대형트럭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역할을 바꾸어 운전상황을 체험하는 이벤트(Exchanging Places)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 유럽연합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형트럭 디자인 표준을 제안할 계획임.



Exchanging Places 이벤트 개최 모습

<http://www.london.gov.uk/media/mayor-press-releases/2013/09/mayor-pledges-new-safer-lorry-charge-to-protect-cyclists-in>

<http://content.met.police.uk/Article/Exchanging-Places-Events/1400007586440/1400007586440>

절도 및 파손이 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의 가장 큰 걸림돌

파리市 / 도시교통

- 파리市는 2007년부터 “벨리브(Vélib)”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많은 나라와 도시들로부터 자전거 공유시스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자전거가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되어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Le monde 신문사가 발표한 “Vélib”의 최근 도난 및 파손에 대한 집계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이후 9,000여대의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35곳의 자전거 대여지점이 파손되거나, 대여 자전거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2007년에 총 23,800대의 자전거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전거는 14,000대로 약 60%수준에 불과합니다.
- 이러한 수치는 2010년에 시작된 런던市 자전거 공유시스템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런던市에서는 현재까지 총 143건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파리市가 런던市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市 외곽의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분실과 파손이 발생하고 있지만(한달 평균 15건의 적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리市는 자전거 도난 등으로 인해 연 백만 유로(약 14억원)의 예산을 모니터링과 자전거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런던市의 경우 자전거공유시스템의 수요가 가장 높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모든 지역에 무인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Vélib” 자전거 공유시스템이 도난과 파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09/paris-thefts-and-vandalism-could-force-bike-share-shrink/7014/>

<http://snipelondon.com/scoop/london-hire-bike-thefts-rise-following-scheme-expansion>

버스운전기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버스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미국 리치몬드市 / 도시교통

- 대도시의 버스운전기사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업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 하나로 뽑히고 있음. 이에 버지니아州的 리치몬드市는 버스운전기사들의 소식과 스토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교감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고립된 좁은 공간에서의 운전환경과 버스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운전기사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리치몬드市는 버스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운전기사들의 이력과 스토리를 정리하여 거리문화에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현재는 웹사이트에 이들의 사진과 개인 이야기가 공개되어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운전기사들이 단순히 버스만 운전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 주변의 같은 시민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리치몬드市 버스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리기 위한 것임. 버스운전기사의 9명 중 1명만이 정년퇴직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임.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버스 이용자들도 매일 만나게 되는 운전기사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운전기사들의 고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2/09/very-mortal-life-city-bus-drivers/3166/>

도시계획·주택

PPS의 LQC 공공공간 개선전략

뉴욕市 / 도시계획·주택

- 뉴욕市 맨해튼에 소재한 Project for Public Spaces(PPS, 공공공간 개선 프로젝트)는 도시계획, 디자인, 시민교육을 주도하는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시민들과 함께 공공공간을 재창조하여 보다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음.
- PPS가 주도하는 캠페인 중 하나인 “Lighter, Quicker, Cheaper”(LQC)는 PPS의 지역개발전략(local development strategy)을 지칭하며,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LQC 지역개발전략은 리스크가 적고, 저예산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공공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활용함. LQC의 주요 공공공간 개선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편의시설 (Amenities) 및 공공예술(Public Arts) 활용
 - 유연한 좌석에서 책과 게임 키오스크에 이르기까지, 저예산으로 도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활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레이어(layer)를 마련함.
 - 마찬가지로 공공예술도 로테이션(순회 전시 등)을 통해 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시민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독특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샌프란시스코의 Cannery Row는 유연한 건물의 전용(flexible, adaptive reuse)과 체계적인 관리 및 프로그래밍을 통해 훌륭한 공공공간으로 재창조되었음.



일시적인 예술품 전시와 같은 Temporary Public Art는 공간에 변화를 주어 시민들의 재방문을 촉발함.



Bryant Park의 재디자인은 PPS의 첫 번째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음. 성공의 핵심은 유연한 편의시설을 통해 공간을 활성화하도록 한 것임.

- 이벤트 활용 및 개입 프로젝트(Intervention Projects)

- 이벤트는 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함.
- 이벤트는 지속적인 개입수단(intervention means)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비전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 더욱이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바를 토대로 공간의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결정하고 수용하게 됨.



도로와 보도는 도시 공공공간의 약 80%를 차지함. 임시도로 폐쇄를 통한 이벤트는 간과하기 쉬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가능하게 함.



재생된 공간과 재생된 재료의 예: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고가도로 아래에서 화물운반대(shipping pallet)를 테이블로 재활용하여 potluck party(파티 참가자들이 하나씩 요리를 가져오는 파티)를 열고 있음.



창조적인 파트너십 예: 지역의 조경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로 한가운데 임시 공원이 무료로 조성됨.

- 저비용 개발(Light Development) 추구

- 자본 집약적인 건설의 대안으로, 건물의 전용(adaptive reuse)과 임시구조물(temporary structure)은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능하게 함.
- LQC의 저비용 개발은 활용도가 낮은 공간과 지역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파트너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음.



브루클린의 Pier 1 Pop-Up Park는 자본집약적인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까지 저비용의 다목적 공원으로 활용되었음.



영국의 Camden Lock은 재개발을 선택하기 보다, 입면에 페인트를 칠하고 역사건축물들의 1층을 변형하여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냄.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 중 하나인 Granville Island는 기존 산업건물의 저예산 건물전용을 통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성공함.

- 실행 계획(Action Plan) 수립

- 단기 실행계획은 지역의 전략기획팀을 위한 로드맵이 될 것임. 단기 실행계획에는 어메니티(Amenities)에 대한 리소스 제공, 이벤트 및 이벤트 레이아웃(layout) 제안, 시장의 여러 유형에 대한 단기 연구(Quick Studies) 등이 포함됨.
- 중장기 전략계획에서는 단기 실행계획을 좀 더 성숙한 시각에서 변형하고, 미래의 개발과 투자를 위한 지침 프레임 워크를 작성하게 됨. 이것은 또한 추가적인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됨.

- 중장기 전략계획에는 중장기 세부 건물 및 공간 프로그램, 'Inter-While' 프로그램, 모든 주요 공간에 대한 컨셉(concept) 도면 및 레이아웃(layout), 분양 및 관리 전략, 앞으로의 개발 단계, 판례 및 벤치 마크, 공공 및 민간 공간 디자인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됨.

<http://www.pps.org/reference/lighter-quicker-cheaper-2-2/>, 2013-10-04